

## 부모와 자녀의 양육태도 지각 및 대학생의 자아분화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Parenting Behaviors Perceived by Parents and Children and College Students' Self Differentiation on Their Interpersonal Problems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남 상 철  
가족노인복지학과 교수 유 영 달

Dept. of Social Welfare, Silla. Univ.  
Ph. D. Candidate. Sang-Cheol Nam  
Professor, Young-Dal You

---

####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 방법    |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I. 연구 문제 및 분석틀  | 참고문헌         |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parenting behaviors perceived by parents and their children, and college students' self differentiation on

their interpersonal problems. The subjects were 152 college students and their parents in the Busan cit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quality of parenting behaviors of parents perceived by the college students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ir interpersonal problems. The relationship was more prominent regarding mothers' parenting behaviors than fathers'. The perceived parenting behaviors of parents were also associated with all the 8 subscales of the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 Second, the quality of parenting behaviors perceived by parents themselves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extent of interpersonal relations of the children. This relationship was more prominent regarding mothers' perceived parenting behaviors than fathers'. The parents' perceived parenting behaviors were also associated with all the 8 subscales of the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 in ascending order of their correlational strength. Third, the self differentiation level of the adolescents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ir interpersonal problems. Fort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adolescents' self differentiation' and 'mothers' perceived parenting behavior' had significant effects on interpersonal relations, while 'fathers' perceived parenting behavior', and 'parents' parenting behavior perceived by children' had not. The relative importance of self differentiation compared to parents' parenting behaviors was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st-adolescents. The limitations of the research were mentioned in regard to sampling.

주제어(key words) : 후기 청소년(post-adolescents), 지각된 양육태도(perceived parenting behavior), 자아분화(self differentiation), 대인관계문제(interpersonal problem)

## I. 서론

우리나라 부모들의 열성적인 자녀양육과 교육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후기 청소년들은 많은 문제들을 노출하고 있다. 학교 및 사회에서 청소년기 후기의 청년들이 겪는 문제들은 심각한 사회적 기회비용을 앓아간다. 상담 및 교정기관 등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들의 대부분은 대인관계문제(이창기·박민규, 1996)와 관련되는바 청소년들의 대인관계는 인터넷 및 휴대폰 등 정보통신기술, 또래 문화, 교육적 경험, 자녀양육,

개인의 성격적 요인 등 많은 영향 요소와 관련하여 고찰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후기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의 대인관계 문제를 연구하려 한다. 대학생은 청소년 후기 혹은 초기 성인기에 해당<sup>1)</sup>하는 시기로 사춘기로 표현되는 청소년 초기와는 달리 성적인 성숙을 이루고, 정서적·정신적 면에서도 다소 안정되지만 여전히 가치 갈등, 미취업, 미혼 등에 따른 불안을 경험하는 시기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 체제 이후 대졸자들의 미취업이 급증하고 만성화되고 있으며 결혼이 늦추어지는 등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대학생기는 진로의 결정, 배우자 선택 등 각종 사회 적응의 기본이 되는 대인관계 능력 함양을 중요한 발달과업(권석만, 1995; 김형진·한종철, 2004)으로 안고 있지만, 급격히 증가하는 대인관계의 상황에 적응적이지 못함으로써 정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게 된다(김형진·한종철, 2004). 그런데 대인관계형성의 근원적인 요인을 유아기·성장기의 가족환경 변인과 양육태도에서 찾는 연구가 많다(이은경, 1995; 박은미, 1999; 권보연, 1999). 가정이 제공하는 환경은 가정의 구조적이고 물리적인 환경과 함께 가족구성원 간의 정서적·심리적 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히 후자의 경우 초기 부모-자녀 관계는 성장 이후 전 생애 동안 대인관계 등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Bronfenbrenner, 1975; 정방자·최경희, 2001). 적절한 양육을 통하여 대인관계의 형성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 성장기 이후의 대학생은 사회생활 전반에 많은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방식을 주제로 한 연구들은, 일관성과 공평성이 결여된 훈육, 심한 체벌, 충동에 의한 훈육 등과 같은 요인으로 인하여 청소년의 비행이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증가한다고 한다(Putton, 1973; 정영숙 등 2001).

이와 같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양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태도나 자녀가 지각한 양육태도 등 한 측면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같은 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고는 부모와 자녀 관계의 상호 역동성에 초점을 두고 부모의 양육태도와 이에 대한 자녀의 지각의 일치 혹은 차이의 정도에 주목하여,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가 지각하는 정도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고 이것이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일차적으로 연구한다.

다른 한편, 대인관계 문제의 원인의 다른 한 축으로 양육적 환경과 부모의 양육과정을 내면화하는 자녀의 자아분화(differentiation of self)를 꼽을 수 있다. 자아분화는

1) 대학생 시기(대체로 20-23세)는 학문분야에 따라 인권 및 법적 정치적 권리에 관련된 경우 성인기(법학, 정치학, 사회복지학 등)로 분류되기도 하고, 심리적 특성 및 사회적 역할특성과 관련된 경우 청소년기(청소년후기)(심리학, 가족학)로 분류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경우를 채택하여, 특히 송명자(2003)의 기준을 따라 대학생 시기를 '청소년 후기' (혹은 후기 청소년기)로 간주한다. 하지만, 대학생시기의 독특한 문제들이 강조되는 문맥에 따라 '대학생기'로 표현하기도 한다.

Bowen 이론의 초석으로, 정신 내적 개념인 동시에 대인관계적인 개념(김영애 등, 2002)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대학생의 자아분화와 대인관계를 연구한 국내 논문은 부족한 실정이다. 자아분화와 대인관계의 상관을 보여주는 대표적 연구들은 이인숙(1999), 이명애(1992), 박수영(2005) 등이 있는 바, 앞의 두 연구는 자아분화에서 주장하는 내용과는 달리 한국적 가족문화의 속성상 가족 결속이 강할수록 자아분화가 높아진다는 의미로 다루어지고, 박수영(2005) 연구는 부자유친성이라는 전통적 부모자녀관계가 자아분화에서 강조하는 개별화의 개념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밝히는 측면이 있지만 여기서 유의하여야 할 것이 있다. 즉 개인이 생애 걸쳐 달성하여야 할 ‘자아분화’의 목표는 개인이 가족 정서와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의 지나친 애착으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개체화’와 동시에 성인기에 접어들면서 부모의 삶을 이해하고 대인관계의 성숙한 친밀감을 형성하는 ‘관계성’을 함께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아분화는 개인의 다차원적인 ‘개별과 관계’의 조화를 강조한다(Bowen, 1960). 여기서 ‘조화’가 강조되는 것은 개인의 신체와 정서·정신의 근원이 되는 가족체계란 부모가 자녀의 양육과 성장을 돕는 가장 중요한 터전이며, 또한 부모의 성장을 돕고 자녀와 더불어 성숙해가는 생애 교육의 요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아분화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넘어 발달단계에 따라 발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Bowen이 제시한 자아분화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응집력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분화가 높아진다(박유화, 2001; 이장주, 2002; 최인재, 2004)는 점을 들어 우리나라 전통적인 가치관을 반영하는 제 논문들의 유용성도 있지만 이들 논문이 사용한 ‘응집력’의 척도 또한 가족의 단순한 결속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균형성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을 볼 때 자아분화의 가치관과 상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특히 아동이나 사춘기와는 달리 성인기에 접어드는 대학생의 경우 자아분화는 대인관계 문제에 중요한 요인 됨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생의 자아분화가 대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자녀의 부정적인 자아분화는 대인관계의 문제로 이어져 사회적 퇴행<sup>2)</sup>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인간의 사회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 과정을 부/모와 자녀 간에 비교 분석적으로 살펴보면서 개인의 주체적인 힘과 변화 가능성을 위한 자아분화를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성인기에 접어드는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Bowen(1974, 1976)은 가족체계 이론을 통해 가족원의 정서적 과정을 설명하는데, 1970년 중반부터 발표한 논문에서 ‘정서적 단절’과 ‘사회적 퇴행’을 발표하였다. ‘사회적 퇴행’이란 사회도 가정과 같아서 불안에 놓이면, 이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정서적 충동에 의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역기능적 증상을 나타낸다고 한다. 즉 사회적 불안이 증대되면 전체에 대한 관심이 상실되고 하위집단끼리 융합되어 투쟁하며 합리적 문제해결능력을 위태롭게 하는 정서적 과정인 사회적 퇴행현상이 발생한다고 한다(Kerr, 1981; 송정아·최규련, 2002, 재인용).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1.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양육태도 지각

대학생들의 대인관계 형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상호 작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대한 상호간의 인지의 일치/차이의 정도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인간이란 대상을 객관적 존재 그 자체로 이해하기보다 자신의 지각방식이나 과거의 경험에 따라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속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하여,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였는가 하는 실제적인 현상은 자녀와 부모가 처한 현실과 양측의 과거의 경험에 의해 다르게 지각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재 자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녀가 어렸을 때 부모가 실제로 어떻게 양육하였는가 하는 객관적인 현상 - 이 과거의 사실을 확인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겠지만 -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양육방식에 대한 자녀의 지각, 곧 자녀에 의해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전민희, 1994, 이은주, 2001)를 동시에 고려하여 상호 역동성을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부모의 실제 행동보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이 자녀의 적응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있지만(Nedinnus(1965); Schaefer(1965), 이 연구들은 부모와 자녀의 양육태도 인지에 대한 비교 분석적 연구가 아니기에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함은 인간을 이해하고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를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나아가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지각하는 방식은 자녀 자신의 심리적 환경을 구성하는 가족체계라는 큰 틀에서 형성되는 것이기에 부모와 자녀의 양육태도 지각만으로는 자녀의 대인관계를 비롯한 제 행동을 평가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자녀가 가족의 양육환경을 어떻게 내면화하였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 2. 대학생의 자아분화 및 대인관계와의 관계

자아분화(differentiation of self)는 Bowen에 의해 체계화된 것으로 가족 양육 환경의 내면화를 통하여 '정신내적 수준(intrapsychic level)'과 '대인적 수준(interpersonal level)'의 양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개인은 '자아분화'를 통해 사고로부터 감정을 분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정서적으로 부모와의 지나친 애착(결속; togetherness)으로부터 분리 독립하는 것이다(송정아 · 최규련, 2002). 자아분화의 정도에 따라 이후의 결

혼관계 및 사회생활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자아 분화를 적절히 이루지 못한 극단적인 경우에 부모와 자녀는 공생관계에 놓이게 되며, 사회현장에서 경험하는 각종의 위기, 스트레스 상황에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나타낼 수 있다. 자아분화의 이상적인 상태는 정서적인 단절이나 냉정함, 인간적인 정서반응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와 사고, 가족과 개인 간 관계의 균형을 위해 노력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체계이론의 분화(differentiation)는 개인이 도달하여야 하는 목표이면서도 과정이며, 어떤 상태와 삶의 방향을 동시에 의미하는 개념이다(Friedman, 1991; 제석봉, 1986, 재인용). 사고와 감정의 분리가 적절하지 못한 개인일수록 대인관계에 역기능적일 수 있으며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개별성을 희생한다. 남의 가치와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을 자신의 것인 양 속이는 거짓자아(假我)로 살아간다. 가족체계이론은 인간에게 주어진 삶의 힘이 성장을 도와 정신적으로 부모와 분리된 개별 존재로 발달시킨다고 한다. 동시에 상응하는 관계의 역동성이 아동과 가족을 서로 정서적으로 연결되도록 추진해 준다.

이렇듯 근원적인 속성을 지닌 자아분화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함께 자녀의 성격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본고의 자아분화관 '가족체계 과정에 형성되는 개인의 인지와 정서, 개별과 관계의 조화 정도'를 의미한다. 그 과정 속에 자녀는 부모의 양육으로 성장하면서 개인 내적으로는 인지와 정서를 함양하고 조화시키며, 외적으로는 부모를 포함한 대인관계에 친밀감과 적절한 경계성을 형성한다. 자아분화의 주된 개념은 ①인지 대 정서, ②자아의 통합, ③가족투사과정, ④정서적 단절, ⑤가족퇴행의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sup>3)</sup>. (Bowen, 1982; Hansen & L'Abate, 1982, 제석봉, 1986). 자아분화는 가족의 기능성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가족 상호작용의 결과에 의해 그 수준이 정해진다. 인간이 성장기 이후의 삶에 건강한 인격체로 기능하려면 자신과 환경에 대한 지각과 통제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개인의 자아분화는 가족체계 내에서 성장 발달하여 사회 환경에 올바르게 적응하

- 3) 첫째, '인지 대 정서적 기능'은 한 개인의 자아분화정도가 인지와 정서 체계로 얼마나 분화되어 있는가 이다. 자아분화(differentiation of self)의 정도는 개인의 지적과정(intellectual process)과 정서과정(feeling process)간에 구분할 수 있는 정도를 반영한다. (Vanderkool & Handelsman, 1984). 둘째, 진아와 가아로 구성되는 '자아 통합'은 진아의 발달을 통해 사회적 장면에서 접하는 각종 스트레스에 안정적인 자아가 작용하도록 한다. 사회적 압력과 자극에 쉽게 변하는 위장된 가아를 극복하고 진아를 형성하는 것이 자아통합의 목적이다. 셋째, '가족투사과정'(family projection process)은 핵가족의 정서체계에서 부부간의 갈등과 역기능으로 인한 문제가 자녀에게 투사된다는 것이다. 넷째, '정서적 단절'(emotional cutoff)은 유아의 출생이후 양육자와 형성되어 온 애착의 충족되지 않는 미해결된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섯째는, '가족의 퇴행'으로 가족분화 수준이 낮은 가정일수록 인지·정서적 체계에서 미분화되고 융합의 경향이 심하여 가족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나 스트레스에 직면할 때 긍정적인 방법보다는 퇴행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Bowen(1986)은 부모-자녀관계가 친숙하지 못하고 부모로부터의 개별화가 미약하여 삼각화 현상이 강한 경우 자녀의 정서적 단절도가 높고, 대인관계에서도 자율성이 부족하여 성숙한 개체로 성장하지 못한다고 하였고, Hoffman & Weiss(1987)도 개인이 정서적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가족 갈등이 심할 때 부적응적인 행동이 많이 나타난다고 한다. Hoffman(1984)은 자기 가족 기능을 건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청소년이 그렇지 못한 청소년에 비해 합리적 사고의 발달이 높다고 하고, 부모로부터 정서적 독립을 이루지 못했을 경우 역기능적 행동이 많다고 보고한다(제석봉, 1989,

### 3. 대학생의 대인관계

대인관계는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대인관계란 개인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보편적인 심리적 지향성으로서 내적 특성과 외적행동의 관계를 말한다. Heider(1964)는 대인관계를 개인이 타인에 대해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반응하며 어떻게 타인을 지각하고 그에게 행위를 하는가, 타인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에 대한 심리적 지향성의 양식이라고 정의하였고, 권석만(1999)은 인간의 발달을 대인관계의 틀 속에서 재구성하여 각 단계마다 형성하게 되는 대인관계의 내용과 질이 개인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게 된다고 한다. Leary(1957)는 대인관계의 행동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대인 관계를 다른 사람과의 명백하고 의식적이며 윤리적인 것과 관련된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다. Freud는 대인관계의 목적을 충동의 억제를 통한 적응과 쾌락이라고 보았고, 프로이트학파(Erich Fromm, H.S. Sullivan 등)는 대인관계의 문화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대인관계의 주된 동기는 불안의 감소 내지 불안으로부터의 도피를 통한 안전성의 확보라고 하였다. 즉 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으로서 사회 문화적 요인, 특히 가족관계 및 대인관계에 주된 관심을 두었다.

이상과 같은 대인관계에 대한 심리학적 이론의 내적 무의식적 측면에 대하여 사회학적 이론에 근거한 상징적 상호작용주의가 나타났다. 상징적 상호작용주의(symbolic interactionism)학파<sup>4)</sup>는 William James의 경험적 자아개념에 기초하여 대인관계의 이해에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대인관계를 사회적 소산으로서 보며 타인들과의 의사소

4) 대인관계에 미친 상징주의 이론의 공헌은 정신분석학의 내적이고 무의식적인 영역에서 탈피하여 대인관계의 경험적이고 사회적인 면을 강조하여 의사소통 등의 연구를 통해 과학적 차원에서 재조명한 점이다.

통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자아는 주체아와 대상아로 구분되며, 대상아는 사회의 집단의식이 내면화된 것으로 이런 표현된 역할담당을 통해 인간은 사회적 현장에서 반응하게 된다고 하였다(권보연, 1999, 재인용).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자들은 인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인간의 행동은 그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기초를 둔다는 점과, 이런 의미들은 인간사회 내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형성되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Mead(1935)는 인간의 주체아는 개인이 자기 스스로에 작용하는 측면으로 상징을 사용함에 따라 타인을 의식하게 되고 사회적 가치관, 태도 등을 익힘으로써 대인관계는 성숙한 단계에 이른다고 한다. 즉,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반응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반응한다는 전제 하에 대인관계의 양상을 자아개념과 관련시켜 연구하였다. 이와 같이 대인관계의 목적은, '대상과의 교류로 주체성을 확립함으로써 자아실현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인관계 이론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인행동 분류법이 개발되었다. Horowitz는 Leary(1950), Sullivan(1953), Horney(1945) 등의 대인관계 이론을 바탕으로 개인의 유아초기의 애착양상에 따른 부적응적 대인관계의 역동성을 밝혔다. 그는 불안의 양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대인관계의 문제를 탐색하였다(Horowitz, 1992; 진민희, 1994, 재인용). Horowitz(1979)는 '대인관계문제 척도(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Scale, IIP)'를 개발하였고, 이어 Alden, Wiggins & Pincus(1990)는 IIP 척도를 대인관계 양상을 동적인 방법을 통해 원주화(circumplex)한 대인관계 문제 유형척도-순환 모형(IIP-C)을 개발했다. 이들은 대인관계문제 영역을 Leary가 제안한 두 축을 중심으로 8가지로 나누어 지배성, 보복성, 냉담성, 회피성, 비주장성, 피착취성, 과배려성, 간섭성으로 명명하였다(Horowitz et al, 1988; Alden, Wiggins & Pincus, 1990; 권보연, 1999, 재인용).

본고는 대학생들이 경쟁적인 사회 환경 속에서 긍정적 대인관계를 형성을 위한 일환으로 가족 과정과 양육적 환경을 중요시하면서도 그 과정에 형성되는 자녀의 자아분화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 III. 연구 문제 및 분석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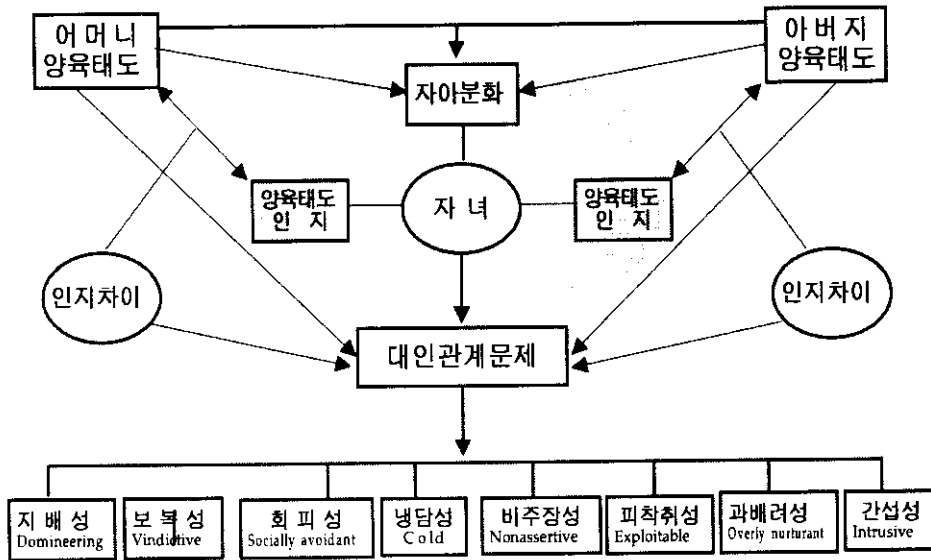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대인관계 문제와 어떤 상관을 보이는가?



2. 자녀의 자아분화는 대인관계의 문제와 어떤 상관을 보이는가?
3.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 '자녀의 자아분화' 및 자녀의 인구통계학적 지표들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의 정도는 ?

이 같은 연구 문제를 바탕으로 작성한 분석의 틀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부모와 자녀의 양육태도 지각 및 대학생의 자아분화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의 틀

## IV. 연구 방법

### 1. 조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소재 S대학, B대학, Y대학 등 3개 대학의 1-2학년 대학생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설문지는 대학별로 각각 60부, 80부, 80부씩 배포하였다. 설문지는 자녀용, 아버지용, 어머니용 세 가지로 되어 있으며, 각 설문지를 학생에게 배포하여 부모용은 부모로부터 설문을 받아오도록 하였다. 수거된 설문지중 양부모가 안 계신 설문지 15부, 결측치가 많은 9부를 포함하여 부모 미제출 등 44부를

제외한 152부를 바탕으로 통계 분석하였다.

## 2. 측정 도구

### 1) 양육태도 척도

부모-자녀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PBI(The Parent Bonding Instrument)를 사용하였다. PBI는 Parker, Tupling & Brown(1979)이 개발한 돌봄과 자율의 두 차원으로 구성된 척도로, 초기 16세까지 형성된 부모와의 관계를 알아보는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송지영(1992)이 한국판으로 번안한 것을 사용하되, 다만 '양육태도'를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가 지각한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부/모와 자녀가 지각한 양육태도의 각 영역별 신뢰도 검정 결과는 높은 내적 안정성을 보였다(표. 1).

<표 1> 양육태도 하위 영역별 문항 및 신뢰도

지각 주체	양육 대상	양육 태도	Cronbach $\alpha$ 계수	지각 주체	양육 주체	양육 태도	Cronbach $\alpha$ 계수
아버지	자녀	돌봄	.82	자녀	아버지	돌봄	.87
		자율	.72			자율	.81
어머니		돌봄	.82		어머니	돌봄	.85
		자율	.73			자율	.84

### 2) 자아분화 척도

자아분화는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 기본으로 제석봉(1989)이 개발한 '자아분화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Cronbach  $\alpha$ =.64), 자아의 통합(Cronbach  $\alpha$ =.55), 가족투사과정(Cronbach  $\alpha$ =.83), 정서적 단절(Cronbach  $\alpha$ =.78), 가족 퇴행(Cronbach  $\alpha$ =.85)의 5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문항 수는 36개이며, Cronbach  $\alpha$  값은 .85이다.

### 3) 대인관계문제 척도

대인관계 문제 척도는 Horowitz 등(1988)이 Leary(1969)의 대인관계 이론에 기초하여 포괄적인 대인관계 양상을 6개의 하위척도로 나누어 총 127문항을 개발한 것을

Alden 등(1990)이 통계적 절차를 통해 8개 하위 차원의 총 64문항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것은 5점 Likert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그 영역에서 대인관계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8개 하위 차원과 본 연구에서 밝혀진 각각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 ①지배성(Domineering)(.65) ②보복성(Vindictive)(.72) ③냉담성(Cold)(.76) ④회피성(Socially avoidant)(.86) ⑤비주장성(Nonassertive)(.86) ⑥피착취성(Exploitable)(.80) ⑦과배려성(Overly nurturant)(.70) ⑧간섭성(Intrusive)(.66).

###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SPSS 1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였고,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 자녀의 자아분화와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Pearson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수의 독립변수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 V. 연구결과 및 해석

###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연령과 성별, 그들의 부모의 학력과 연령은 <표 2>와 같다. 설문 대상자 중 자녀의 나이를 살펴보면, 20세가 75.6%로 가장 많았으며, 23세가 16.4%이며, 그 외 21세(3.2%)와 23세(3.2%), 24세(1.3%)로 구성되어 있다. 여학생은 34명(22.37)이며, 남학생은 118명(77.63)으로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표집수에서의 성별의 편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t=-.30$ ,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  $t=.14$ ; 자아분화 전체  $t=-1.33$ , 인지정서  $t=-1.08$ , 자아통합  $t=.60$ , 가족투사  $t=-1.89$ , 정서단절  $t=-.60$ , 가족퇴행  $t=-2.05$ ; 대인관계 문제 전체  $t=.08$ , 지배성  $t=-.89$ , 보복성  $t=-.78$ , 냉담성  $t=-.37$ , 회피성  $t=.12$ , 비주장성  $t=.31$ , 피착취성  $t=-.60$ , 과배려성  $t=1.68$ , 간섭성  $t=1.42$ ; 이상 모두  $p<.05$ )에서 남녀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모두  $p<.05$ )으로 본 연구자료들은 유효한 것으로 보고 분석을 하기로 하였다.

&lt;표 2&gt; 연구 대상자의 연령과 성별 분석 및 부모의 학력과 연령

자녀	구분	여학생		남학생		합계	
		N	%	N	%	N	%
연령	20	24	70.6	91	77.1	115	75.6
	21	3	8.8	2	1.7	5	3.2
	22	2	5.9	3	2.5	5	3.2
	23	3	8.8	22	18.7	25	16.4
	24	2	5.9			2	1.3
합계		34(22.37)		113(77.63)		152(100)	
부모	구분	아버지		어머니			
		N	%	N	%		
학력	초등학교	5	3.3	7	4.6		
	중학교	20	13.1	58	37.9		
	고등학교	114	73.9	85	54.2		
	전문대↑	13	7	4	1.3		
연령	40-45세	21	13.7	56	36.6		
	45-50세	72	47.1	63	41.2		
	51-55세	40	26.1	31	20.3		
	56-60세	17	11.1	1	.7		
	60-65세	2	1.3	1	.7		
합계		152(100)		152(100)			

자녀의 아버지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114명(73.9)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중학교 졸업은 20명(12.1%), 초등학교 졸업이상은 13명(7%)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85명(54.2%)으로 다수이며, 중학교졸이 58명(37.9%), 초등학교졸이 7명(4.6%), 초대졸 이상이 4명(1.3%)이다.

## 2.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

자녀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계의 심리적, 정서적 요인인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양육태도에 대한 부모와 자녀간의 인식의 차이에 대한 t-검증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에서 보듯이, '자녀가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의 평균 2.96(SD=.33)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 평균 2.92(SD=.25)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1.02$ ,  $p>.05$ ). 부모가 자녀를 긍정적으로 양육할수록 자녀도 부모에 대하여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3>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비교 (N=152)

지각주체	양육주체	양육태도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양쪽)
자녀	아버지	돌봄	2.88	.458	-1.18	.23
아버지			2.94	.380		
자녀	아버지	자율	2.88	.419	1.91	.05
아버지			2.83	.317		
자녀	어머니	돌봄	3.07	.408	.18	.85
어머니			3.06	.367		
자녀	어머니	자율	2.97	.43	3.23	.00
어머니			3.08	.35		
자녀	아버지	합계	2.89	.37	-2.74	.00
어머니	어머니		3.02	.36		
아버지	아버지	합계	2.89	.37	-1.88	.05
어머니	어머니		2.92	.24		
자녀	부모	합계	2.96	.33	1.02	.30
부모			2.92	.24		

+자녀가 아버지의 양육태도 중 돌봄의 영역을 어떻게 지각하였는가를 의미함

다음으로, 부모를 아버지와 어머니로 분리하여 살펴보았다.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평균 2.89(SD=.37)는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 양육태도'의 평균 3.02(SD=.36)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t=-2.74, p<.05$ ), 자녀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자녀의 평가에서의 차이가 평가자의 주관성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평가대상의 객관적인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는 바, 이 문제는 평가자 본인(부/모)이 평가 대상(부/모의 자녀양육태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측면과 비교분석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표 3>의 밑에서 두 번째 및 세 번째 열의 자료를 비교해 본다면, 자녀( $t=-2.74, p<.01$ )든 부/모( $t=-1.88, p<.05$ )든 모두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보다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에 대한 양육자의 역할에서 아버지에 비하여 어머니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자녀와 부/모 모두 인정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한편, 양육태도는 돌봄과 자율의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두 영역에서 차이들도 알아보았다. 우선, 돌봄 영역에서는 아버지 양육태도(돌봄)에 대해 아버지( $M=2.94, SD=.38$ )와 자녀( $M=2.88, SD=.45$ )는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t=-1.18, p>.05$ ), 이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돌봄)에 대해 어머니( $M=3.06, SD=.36$ )와 자녀( $M=3.07, SD=.40$ )간 차이가 없었던 결과( $t=1.91, p>.05$ )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어머니가

자녀를 돌보고 배려한 만큼 자녀도 아버지/어머니의 양육태도에서의 돌봄의 정도를 지각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는 반대로 양육태도에 있어서 자율의 영역에서는 아버지 양육태도(자율)에 대해 아버지( $M=2.83$ ,  $SD=.31$ )와 자녀( $M=2.88$ ,  $SD=.41$ )는 인식의 차이가 유의미 하게 나타났으며( $t=1.91$ ,  $p<.05$ ),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자율)에 대해 어머니( $M=3.08$ ,  $SD=.35$ )와 자녀( $M=2.97$ ,  $SD=.43$ )간 차이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t=3.23$ ,  $p<.01$ ). 이러한 결과는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자율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자율적인 양육태도보다 더 부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어머니는 자녀를 자율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자녀는 그런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지나친 간섭이나 통제로 지각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자율에 대한 지각의 차이는 자녀의 자아분화에 영향을 미치고 대인관계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 3.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대인관계문제 간 상관 분석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각각 자녀의 대인관계문제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상관분석을 통하여 알아보았다<표 4 참조>. <표 4>의 아래 행 오른쪽 열에서 보듯이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전반적인 대인관계문제 간에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 $r=-.43$ ,  $p<.01$ )이 있으며, 이와 동일한 결과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전반적인 대인관계와 상관에서도 나타났다( $r=-.38$ ,  $p<.05$ ). 이것은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대인관계의 문제는 감소하며 또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자녀의 대인관계문제는 작아진다는 의미이다.

자녀의 전반적인 대인관계문제는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 $r=-.38$ ,  $p<.01$ )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대학생들이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더 많은 대인관계의 문제를 보였다는 의미이다. 대인관계의 구체적인 하위 영역별로 보자면,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자녀들은 대인관계에서의 냉담성( $r=-.35$ ,  $p<.01$ ), 지배성( $r=-.31$ ,  $p<.01$ ), 회피성( $r=-.27$ ,  $p<.01$ ), 피착취성( $r=-.25$ ,  $p<.01$ ), 보복성( $r=-.26$ ,  $p<.01$ ), 비주장성( $r=-.25$ ,  $p<.01$ ), 간섭성( $r=-.25$ ,  $p<.01$ )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만 과배려성( $r=-.15$ ,  $p>.05$ )은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 중 '돌봄과 자율'의 태도, 즉 '자녀가 지각하기에 아버지가 자신을 돌봐주는 양육태도를 가졌다'는 생각의 정도와 '자녀가 지각하기에 아버지가 자신을 자율적으로 양육했다'

<표 4> '자녀가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및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 대인관계의 상관 분석

지각 주체	양육 주체	양육 태도	대인관계								합계
			지배성	보복성	냉담성	회피성	비주장성	피착취성	과배려성	간섭성	
자녀	아버지	돌봄	-.28*	-.16**	-.25**	-.22**	-.12	-.20*	-.08	-.11	-.26**
		자율	-.24**	-.28**	-.33**	-.23**	-.31**	-.25**	-.18*	-.31**	-.38**
		합계	-.31**	-.26**	-.35**	-.27**	-.25**	-.26**	-.15	-.25**	-.38**
자녀	어머니	돌봄	-.20*	-.24**	-.36**	-.28**	-.28**	-.28**	-.04	-.09	-.34**
		자율	-.21**	-.26**	-.30**	-.25**	-.28**	-.31**	-.12	-.25**	-.36**
		합계	-.24**	-.29**	-.38**	-.30**	-.32**	-.33**	-.10	-.27*	-.41**
아버지	아버지	돌봄	-.17*	-.18*	-.18*	-.21**	-.16*	-.13	-.07	-.04	-.22**
		자율	-.33**	-.33**	-.21**	-.12	-.07	-.12	-.12	-.18*	-.26**
		합계	-.31**	-.31**	-.24**	-.21**	-.15	-.16*	-.12	-.14	-.30**
어머니	어머니	돌봄	-.20**	-.28**	-.29**	-.33**	-.21**	-.20	-.07	-.14	-.32**
		자율	-.22**	-.31**	-.25**	-.20*	-.16*	-.14*	-.13	-.13	-.28**
		합계	-.24**	-.34**	-.31**	-.31**	-.21*	-.20*	-.12	-.16*	-.35**
자녀	부모	합계	-.30**	-.31**	-.40**	-.32**	-.32**	-.33**	-.14	-.25**	-.43**
부모	부모	합계	-.32**	-.38**	-.32**	-.31**	-.21**	-.21**	-.14	-.17**	-.38**
자녀-부모간 차이*			-.07	-.04*	-.17	-.12	-.17*	-.18*	-.06	-.17*	-.19*

\*\*p<.01, \*p<.05.

+ 자녀-부모간 차이 :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가 지각한 자신의 양육태도'간의 차이 점수

는 생각의 정도가 자녀들의 대인관계 문제와 관련하여 약간의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돌봄 양육태도는 자녀의 대인관계문제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 $r=-.26, p<.01$ )을 보였는데, 이러한 상관은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자율적 양육태도와 자녀의 대인관계문제와의 유의미한 부적 상관( $r=-.38, p<.01$ )보다 작아 보인다. 즉, 아버지의 경우 자녀를 양육할 때 자율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돌봄 태도를 견지하는 것보다 자녀의 대인관계문제를 예방하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이러한 결론의 증거는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즉, 아버지의 돌봄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비주장성( $r=-.12, p>.05$ ), 과배려성( $r=-.08, p>.05$ ), 간섭성( $r=-.11, p>.05$ )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는데 반해, 아버지의 자율적 양육태도는 비주장성( $r=-.31, p<.01$ ), 과배려성( $r=-.18, p<.05$ ), 간섭성( $r=-.31, p<.01$ )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자녀의 전반적인 대인관계문제는 또한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 $r=-.41, p<.01$ ). 이는 대학생들이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더 많은 대인관계의 문제를 보였다는 의미이다. 대인관계의 구체

적인 하위영역별로 보자면,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자녀들은 대인관계에서의 냉담성( $r=-.38, p<.01$ ), 피착취성( $r=-.33, p<.01$ ), 비주장성( $r=-.32, p<.01$ ), 회피성( $r=-.30, p<.01$ ), 보복성( $r=-.29, p<.01$ ), 간섭성( $r=-.27, p<.05$ ), 지배성( $r=-.24, p<.05$ ) 등의 문제들을 유의미하게 적게 나타냈으나 다만 과배려성( $r=-.10, p>.05$ )은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하위 영역인 돌봄( $r=-.34$ ) 과 자율( $r=-.36$ )은 자녀의 대인관계문제와 비슷한 정도의 부적 상관을 보여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경우와 대조를 보였다.

이상에서는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대인관계문제 간의 상관을 알아보았으며, 두 변수 모두 자녀의 대인관계문제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상관연구는 그 특성상 인과관계에 대한 진술을 불가능하게 한다. 즉, 아버지나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대인관계문제가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볼 것인지, 그 반대로 자신의 대인관계 문제가 많은 피험자들이 그들 부모의 양육방식을 부정적으로 지각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함에 있어, 자녀들뿐 아니라 부모 자신도 포함시켰다. 따라서 '(부모 자신이 평가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자녀의 대인관계문제와 상관분석을 한 결과가 매우 유용하며 중요하다. 이러한 결과는 <표. 4>의 가운데 부분에서 보듯이 '(아버지가 지각한)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태도'( $r=-.30, p<.01$ ) 및 '(어머니가 지각한)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r=-.35, p<.01$ )는 자녀의 대인관계문제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위에서 언급한 상관성과 관련하여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대인관계문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흥미롭게도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에서 돌봄적 양육태도와 자율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비중은 다르게 나타났다. 즉,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돌봄적 양육태도'( $r=-.22, p<.01$ )는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자율적 양육태도'( $r=-.26, p<.01$ )보다 자녀의 대인관계문제와 더욱 적은 정도로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머니의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가 역전되어 나타난 바,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돌봄적 양육태도'( $r=-.32, p<.01$ )는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자율적 양육태도'( $r=-.28, p<.01$ )보다 자녀의 대인관계문제와 더욱 큰 정도로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 자녀양육에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자녀들의 기대 및 보다 일반화된 우리 사회의 성역할 기대에 대한 차이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 4. 자아분화와 대인관계문제와의 상관분석

자녀의 자아분화와 대인관계문제와의 상관 분석은 <표 5>와 같다. 자녀의 자아분화와 대인관계문제는 높은 부적 상관이 나타난다( $r=-.51, p<.01$ ). 이것은 자녀의 자아분화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의 문제는 감소한다는 것이다. 자아분화와 대인관계의 하위영역 중 지배성( $r=-.49$ )에서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나타내며, 냉담성( $r=-.46$ ), 피착취성( $r=-.42$ ), 회피성( $r=-.39$ ), 보복성( $r=-.36$ ), 간섭성( $r=-.29$ )의 순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p<.01$ ). 하지만 자녀의 전체적인 자아분화의 정도는 자녀의 과배려성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r=-.13, p>.05$ ).

자아분화의 각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인지-정서는 대인관계의 지배성( $r=-.58$ )과 가장 높게 부적 상관을 나타내며, 보복성( $r=-.31$ ), 간섭성( $r=-.29$ ), 피착취성( $r=-.28$ ), 냉담성( $r=-.26$ ), 회피성( $r=-.25$ ), 비주장성( $r=-.23$ )순으로 높은 부적 상관을 나타낸다( $p<.01$ ).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인지-정서'의 분화가 낮을수록 대인관계의 문제는 많아진다는 것이다. 자녀의 지적 기능이 정서적 기능에서 분화되어 못하고 융합되어 있으면 자신과 외부를 정확하게 지각하지 못하고 본능적인 충동에 따라 반응하는 경향이 많은 데, 이런 경우 대인관계에서도 공격적인 행동이 강하고, 다른 사람을 불신하고 부적절한 자기 노출을 할 경향이 있는 등 역기능성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정미란(1994)도 자아분화 수준과 환경적응력의 정적인 상관을 보고하고, 송화숙(1996)은 지적 기능과 정서적인 기능의 융합정도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대처와 삶의 만족도가 낮으며, 가족 내에서도 자신의 표현에 서툴고, 타인에게 지나치게 배려적 태도를 나타낸다고 보고한다.

자아통합은 냉담성( $r=-.39$ ), 피착취성( $r=-.31$ ), 지배성( $r=-.30$ ), 비주장성( $r=-.29$ ), 보복성( $r=-.29$ ), 회피성( $r=-.28$ ), 간섭성( $r=-.21$ )의 순으로 대인관계문제와 부적 상관을 나타낸다(모두  $p<.01$ ).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가족 관계에서 불안정하고 사회적 차

<표 5> 자아분화와 대인관계문제의 상관분석

	지배성	보복성	냉담성	회피성	비주장성	피착취성	과배려성	간섭성	전체 대인관계
인지정서	-.58**	-.31**	-.26**	-.25**	-.13**	-.28**	-.14	-.29**	-.39**
자아통합	-.30**	-.29**	-.39**	-.28**	-.29**	-.31**	-.12	-.21**	-.40**
가족투사	-.28**	-.31**	-.28**	-.26**	-.28**	-.31**	-.15	-.34**	-.36**
정서단절	-.33**	-.21**	-.41**	-.23**	-.21**	-.31**	-.03	-.12**	-.34**
가족퇴행	-.36**	-.27**	-.37**	-.38**	-.26**	-.35**	-.07	-.18**	-.41**
전체 자아분화	-.49**	-.36**	-.46**	-.39**	-.31**	-.42**	-.13	-.29**	-.52**

\*\* $p<.01$ , \* $p<.05$

극에 쉽게 변하는 가아 假我를 극복하지 못하고 眞我를 형성하지 못한 사람은 타인과의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편협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들은 타인의 행동을 통제하고 권위적인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자신의 내적인 감정과 분노를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권미영(1993)도 청소년의 자아분화의 수준이 낮을수록 인간과 환경에의 부적응 증상이나 문제행동을 많이 나타낸다고 보고한다.

가족투사는 간섭성( $r=-.34$ ), 보복성( $r=-.31$ ), 피착취성( $r=-.31$ ), 정서단절 영역은 냉담성( $r=-.41$ ), 지배성( $r=-.33$ ), 피착취성( $r=-.31$ ), 회피성( $r=-.23$ ), 비주장성( $r=-.21$ ), 보복성( $r=-.21$ ), 간섭성( $r=-.12$ )의 순으로 대인관계문제와 부적상관을 보였다(모두  $p<.01$ ). 가족퇴행은 회피성( $r=-.38$ )에서 가장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냉담성( $r=-.37$ ), 지배성( $r=-.36$ ), 피착취성( $r=-.35$ ), 보복성( $r=-.27$ ), 비주장성( $r=-.26$ ), 간섭성( $r=-.18$ )의 순으로 대인관계문제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모두  $p<.01$ ).

이상을 정리하면, 자녀의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의 문제는 낮아지며, 이러한 결과는 과배려성을 제외한 자아분화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자아분화 수준과 과배려성 간의 상관의 결여는, 피험자들이 평균적으로 다른 어떤 하위 대인관계문제보다도 과배려성의 문제를 많이 보이며( $M=23.13$ ), 이러한 특성에서의 개인간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음으로써( $SD=3.65$ ) 유발된 척도의 변별성의 문제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한 보다 정교한 분석은 추후 연구에서 밝혀져야 할 것이다.

## 5.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영향

지금까지 분석하여 본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 자녀의 자아분화가 자녀의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각종 분석기법을 통하여 살펴보았으나 이들 각 예언변수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정도의 상대적 크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 다중회귀분석에서 대인관계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던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태도’,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자녀의 자아분화’ 등 다섯 개의 주요 독립변인과 성별, 나이, 형제의 수, 평소 친구의 수, 친한 친구의 수, 아버지의 나이, 어머니의 나이,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의 학력 등 관심 변인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고, 대학생 자녀의 대인관계문제를 종속변수로 하였다. 이때 다수의 독립변수를 모두 고려하는 ‘입력(Enter)’ 기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녀의 자아분화’( $t=-2.93$ ,  $p<.01$ )와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

<표 6> 대인관계에 미치는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영향

독립변수 a	표준화 계수(베타)	t	유의확률	수정된 R <sup>2</sup>	F
(상수)		8.53	.00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	-.10	-1.09	.27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02	-.25	.79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태도	-.00	-.02	.97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18	-2.18	.03		
자녀의 자아분화	-.33	-2.93	.00		
성별	-.05	-.77	.44		
나이	-.09	-1.26	.20	.33	5.69***
형제의 수	.06	.73	.46		
평소 친구의 수	-.10	-1.37	.17		
친한 친구의 수	.32	3.68	.00		
아버지의 나이	.13	.92	.35		
어머니의 나이	-.11	-.84	.39		
아버지의 학력	-.06	-.80	.42		
어머니의 학력	-.09	-1.16	.24		

a 종속변수: 자녀의 대인관계 \*\*\* p<.001

도'(t=-2.18, p<.05)가 대학생 자녀의 대인관계문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으며, 흥미롭게도 '친한 친구의 수' (t=3.68, p<.01) 또한 대인관계문제의 정도와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하지만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t=-1.09, p>.05),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t=-.25, p>.05),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태도'(t=-.02, p>.05)는 대학생 자녀의 대인관계문제에 의미 있는 상관을 보이지 못하였다.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전체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은 33%(F=5.69, p<.001)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문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된 자아분화의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부자유친성이 자아분화보다 대인관계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한 박수영(2005)의 연구와는 달리 대학생의 경우 성장기 이전의 부모의 양육태도나 이에 대한 지각보다 대학생의 자아분화가 대인관계문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의 자녀 양육태도'와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자녀의 지각'이 대인관계문제와 높은 상관성을 보였지만, 회귀분석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대학생 자녀의 '지각'은 자녀의 대인관계문제에 직접적인 상관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 양육태도'보다 자녀의 대인관계문제와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많은

논의점을 제기해 준다. 즉,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자녀 관계의 경우와는 달리 어머니-자녀관계에서는, 모의 자녀 양육에 있어 대학생이 지각한 모의 양육태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가족체계상 양육의 주체(모)가 객체(자녀)에게 제공하는 양육의 실제적 질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우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자녀가 성장하여 가족을 떠나 어디를 가던 결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려도 원가족의 내재화된 정서성이 반영된다는 자아분화의 '가족투사과정'이 모-자녀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이는 또한 달리 해석하자면, 주로 어머니에 의해 자녀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적 현실의 한 단면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여 진다.

흥미롭게도,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는 '친한 친구의 수' ( $t=3.68, p<.01$ )이었다. 친구의 수와 관련하여, 단순히 평상시 그저 만나는 '평소 친구의 수' ( $t=-1.37, p>.05$ )는 오히려 적으면 적을수록 대인관계문제의 표출과 상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해주는 바( $p=.17$ )는, 친구의 양보다는 질이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 VI. 결론 및 제언

대학생의 대인관계 형성과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의 함양은 이후 경험하게 될 사회적응에 중요한 요소이다. 본고는 이러한 대인관계의 능력 함양을 위한 주요 요소로 부모의 양육 태도는 물론 자녀 자신의 양육에 대한 인지, 그리고 스스로의 자아분화 정도와 관련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자녀의 대인관계문제는 낮았으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자녀의 대인관계 문제는 낮게 나타났다. 또한,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차이가 클수록 자녀의 대인관계 문제는 높아졌다.

둘째, '자녀의 자아분화' 정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대인관계문제는 낮아졌다.

셋째,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 '자녀의 자아분화'가 자녀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에서 '자녀의 자아분화'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다음으로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태도' 순으로 많은 상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자녀에 대한 부모양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양육 과정에 형성되는 자녀의 자아는 가족관계 만이 아니라 대인관계를 비롯한 사회성 함양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살펴보았듯이, 두 변인 모두 대인관계와 높은 부적 상관이 있다. 대인관계 형성의 기초가 되는 어린 시절부터의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요하지만, 특히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올바르게 지각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부모의 성숙한 양육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어머니는 자녀에 대하여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가졌다고 지각하지만, 자녀는 어머니에 대하여 보다 부정적인 지각을 하고, 특히 어머니의 양육태도에서 통제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V.3.참조>. 그러므로 대학생의 자아성장을 위한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부모의 돌봄도 중요하지만, 자녀가 부모로부터 원만하게 분리 독립하여 진정한 사회일원이 되도록 지원하는 자율성 함양이 중요하다. 문제는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보살핌과 함께 자율성 함양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자녀는 그런 어머니의 태도를 다소 통제적으로 인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자녀의 지각이 부모의 실질적인 양육태도와 차이가 나지 않고 공감의 폭이 넓어지기 위해서는 돌봄과 함께, 자율과 그 역기능적인 측면인 통제를 구분하는 능력, 자녀와 공감할 수 있는 성숙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배양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부모 공동의 양육 역할의 중요성을 재고하게 한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더 중요하게 나타난 점은 이제까지 자녀 양육에 어머니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많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자녀의 양육에 대한 부모 공동의 관심이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자녀의 대인관계 등 사회생활의 적응에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연구가 많은 점(송명자, 2003)을 감안하여 보다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아분화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연구 결과와 같이 가족관계속에서 형성된 자아분화는 가족관계 내에서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를 비롯한 사회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자아분화는 자녀의 성장 이후에도 변화하는 전생애 과정적인 것이므로, 대학생의 자아분화를 향상시켜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원만한 사람이 되기 위한 다차원의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이 필요하다. 그와 함께 자녀의 자아분화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성장을 위한 부모성장 프로그램을 사회교육,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내재하고 있다.

우선, 본 연구는 부산지역의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에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들에게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다. 또한 부모용 설문지의 분석에서 친부모 가족만을 대상으로 하여 한부모, 계부모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고려하지 못한 점이 방법론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 연구 대상자가 지나치게 남학생이 많았는데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에서 남녀 간의 평균차가 없음을 확인하고 본 연구를 진행하였음을 앞서 밝혔다. 하지만, 연구 결과의 적용과 관련된 외적 타당화의 문제는 앞으로 표집수의 성비의 균형을 통해 확인되어야 할 문제일 것이다.

## 참고문헌

- 권보연(1999). "대학신입생의 대인관계 문제유형과 그들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양육태도와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미영(1993).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부적응증상 및 문제행동과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소야자(1990). 청소년의 성장 발달과 간호. 대한간호학회.
- 김미정(1997).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자아분화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나철(1984). "청소년의 가정환경과 문제행동 유형간의 관계분석",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수영(2005). 아동의 부자유친성정과 자아분화 및 대인관계성향간의 관계, 숙명여대박사학위 논문.
- 박은미(1999). "아동기 학대 및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인기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원호택 외 공역(1994). E.Hearst 편저. **현대심리학사**, 서울 교육과학사.
- 유안진 · 이점숙 · 서주현(2004). 청소년이 부모 양육행동 지각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9권, 3호. pp.161-180.
- 윤소연(1993). 자신이 지각한 부모와의 관계가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미간행
- 이숙(198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은주(2001). 청소년이 지각한 자아분화수준 및 부모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논문

- 이은경(1995). 지각된 부모-자녀 관계가 자녀의 자아개념 및 대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귀자(1973). 가족환경 변인과 대인행동간 상관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재숙·백경임(2002), 어머니 양육태도, 아동의 자아개념이 아동의 친구 및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안가정학회지**, 제40권 8호.
- 장진경(1995). “가족적응력과 가족기능과의 관계 : Olson의 순환모델의 곡선성과 Neavers의 체계모델의 선형성”. **한국가정학회지** 제 13권 4호
- F. Philip Rice 원저, 정영숙·신민섭·설인자 편역. 2001. **청소년 심리학**, Σ시그마프레스.
- 정방자·최경희(2001). **성숙한 인간관계를 위한 대인관계와 정신역동**, 이문출판사
- 정영숙(1991). 가족의 사회심리적 환경과 아동의 사회적 역량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제석봉(1986). 자아분화와 역기능적 행동 간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진민희(1994). 딸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대인관계 성향간의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 Alden, L. E, Wiggins, J. S, & Pincus, A. L (1990) <Construction of circumplex scales for the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 55(3,4), p.521-536
- Bowen, M.(1960). A family concept of schizophrenia. In Jackson, D. D. (Ed.), *The Etiology of Schizophrenia : An intergrated Approach*. New York : Ronald Press.
- \_\_\_\_\_ (1965). Family psychotherapy with schizophrenia. In Jackson , D. D. (Ed.), *The Etiology of Schizophrenia : An intergrated Approach*. New York : Ronald Press.
- \_\_\_\_\_ (1976). *Theor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Guerin. P. J. (ed.), Family Therapy.
- \_\_\_\_\_ (1982).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 Jackson Aronson.
- Bronfenbrenner, U. (1979). Contexts of child rearing : Problems and prospects. *American Psychologist*, 34, 844-850.
- Erikson, E. H.(1950).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 W. W. Norton.
- \_\_\_\_\_ (1950). *Identity and the life cycle*. Psychological Issues,
- Freud, S.(1900). *Interpretation of dreams*. London: Hogarth Press
- \_\_\_\_\_ (1901). *The psychopathology of everyday life*. London: Hogarth Press
- \_\_\_\_\_ (1905). *Folkes and their relation to unconscious*. London: Hogarth Press

- \_\_\_\_\_. (1905). *Three essays on sexuality*. London: Hogarth Press
- Fromm, E. (1980). *Greatness and limitations of Freud's thought*. New York : New American Library(Mentor).
- Hauser, S. T, & Follansbee, D. J. (1984). Developing identity: Ego growth and change during adolescence. In H. E. Fitzgerald, B. M. Laster. & M. W. Yogman. eds. *Theory and research in behavioral pediatrics*. Vol. 2. New York :Plenum. 207-268.
- Heider, F. (1964).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
- Hoffman J. A. (1984). psychological separation of late adolescence from their parents.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5. 195 - 217.
- Hoffman J. A. & Weiss. B. (1987). Family dynamics and presenting problems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34(2).
- Horney, K. (1945). *Our inner conflicts*. NY. Norton.
- Kerr. M. E. (1981). Family systems theory and therapy, In A. S. Gurman & D. P. Kniskern (Eds.), *Handbook of family of family therapy*. New York : Bruner/Mazel.
- Kroupa, S. E (1988).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 and Female Juvenile Delinquency." *adolescence*, 23, 171-185.
- Leary, T.(1957). *International Diagnosis of Personality*. New York : The Ronald Press Company.
- Lewis, C. C. (1981). "How Adolescents Approach Decisions: Changes Over Grades Seven to Twelve and Policy Implications." *Child Development*, 52, 538-544.
- Mead, M. (1935). *Sex and temperament in three primitive societies*. New York: Morrow.
- Parker, G, Tupling, H., & Brown, L. B. (1979) <A parental bonding instrument>,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Vol. 52, p. 1-10.
- Rogers, C. (1959). A theory of therapy, persona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s developed in the client-centered framework. In S. Koch (Ed. ), *Psychology: A study of a science* : Vol. 3. New York : Basic Books.
- Sullivan, H. S. (1953a). *Conceptions of modern psychiatry*. New York: Norton.
- \_\_\_\_\_. (1953a).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Norton.
- Sullivan, M. L(1993) "Culture and Class as Determinants of Out-of-Wedlock Childbearing and Poverty during Late Adolescenc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3, 295-316.



- Parker, G, Tupling, H, Brown, L. B (1979). A parental bonding instrument *British Journal Medical Psychology*. 52. p.1-10.
- Parker, G. (1981). Parental reports of depressive. *Journal Affective Disorder*, 3, p. 131-140.
- Parker, G, Barrett, B & Hickie, I. (1992). From nature to network Examining links between perception of parenting received in childhood and social bonds in adulthood.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9, p. 877-885.
- Parker, R. D. (1978a). Children's home environments : and cognitive and effects. In I. Altman and J. F Wohlwill(Eds. ). *Human behavior and environment*, 3. *Children and the environment*. New York : Plenum Press.
- Sears, R. R. (1970). Relation of early socialization experiences to self-concept and gender role in middle childhood.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1, 267 -289.
- Sroufe, L. A (1988). The role of infant-caregiver attachment in development In J. Belsky and T. Nezworski (Eds. ), *Clinical implications of attachment*. MJ. Erlbaum. p. 18-40.
- Symonds, P. M (1951). *The ego and the self*, New York : Appleton - Century -Crofts.
- Wiggins, J. S. & Pincus, A. L (1994). *Personality structure and the structure of personality disorders*. In P.T Costa , Jr. & T. A Widger(Eds.), *Personality disorders and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pp.73-93).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Wiggins, J. S. Philips, N. & Trapnell, P (1989).Circular reasoning about interpersonal behavior: Evidence concerning some untested assumptions underlying diagnostic class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296-305

접수 날짜 : 2007. 05. 08

심사완료일: 2007. 08. 16